

본격적인 폭염 대비 현장 대응상황 점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구 무더위쉼터 및 이동형 쉼터 버스 등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월 25일(토) 대구 광역시를 방문해 무더위쉼터의 운영관리 실태와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장마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대구 지역에 11시를 기해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무더위쉼터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폭염 대응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김광용 본부장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내당도서관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해당 시설은 주택가에 있는 생활밀착형 무더위쉼터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2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주민과 폭염 취약계층이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에서 냉방설비 정상 작동 여부와 주말·공휴일 개방 상황, 휴게공간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서대구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폭염 예찰과 안내 방송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드론은 논·밭 등 야외 영농지역, 대형 건설공사장, 야외근로자 밀집지역 등 폭염취약지역을 12시부터 16시까지(4시간) 집중 순찰한다.

또한, 이동형 무더위쉼터 버스에 탑승하여 이용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동형 무더위쉼터 버스는 전통시장, 공원, 도심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수소·전기버스 등을 배치하고, 차가운 생수를 제공하는 등 취약 계층이 오가는 길목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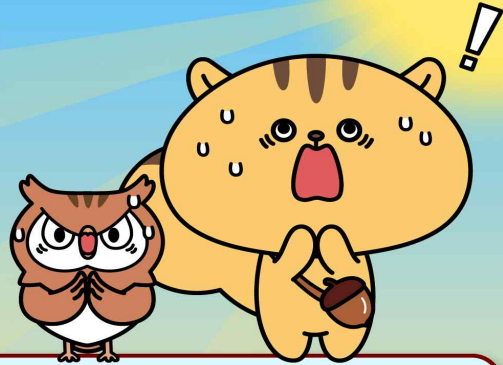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만큼,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야외 근로자처럼 폭염에 특히 취약한 분들을 현장에서 빈틈없이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 신기술을 활용한 폭염 대응 등 폭염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수석전문관	김부생 (044-205-6369)

폭염 6대 행동요령



본격적인 무더위
● 폭염특보 33℃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실내온도 26~28 유지

시원한 장소 휴식

충분한 수분섭취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